

흐무와스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부르고뉴 와인의 정석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21

와인 애호가에게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만큼이나 모순인 말이 '데일리 부르고뉴' 혹은 '가성비 피노누아'다. 부르고뉴 와인의 가격이야 천정부지로 뿔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까다로운 피노누아 품종의 경우 가성비를 따지다간 품질을 놓치기 일쑤다.

140년 역사를 지닌 '흐무와스네(Remouissenet Pere & Fils)'는 누구나, 특히 젊은 세대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부르고뉴 와인을 내놓는다.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손을 잡아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가능할 줄만 알았던 데일리 부르고뉴의 발견이다.

지난 2005년부터 흐무와스네를 이끌고 있는 피에르 앙투안 로바니(Pierre-Antoine Rovani·사진) 대표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흐무와스네의 부르고뉴 루주는 가장 기본급이지만 코에만 대봐도 붉은 과일과 장미향 등 고전적인 부르고뉴 레드 와인의 정석을 느낄 수 있다"며 "젊은 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소위 전략적인 와인인 흐무와스네, 더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러 흐무와스네를 이끌고 있는 피에르 앙투안 로바니(Pierre-Antoine Rovani)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흐무와스네 와인을 소개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나이가 부르고뉴를 마시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흐무와스네는 1877년에 부르고뉴 중심지 본에 자리잡은 유서깊은 곳이다. 초기엔 부르고뉴에서 희귀하고 오래된 빈티지 와인을 사들여 유통하는 전문 네고시앙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1936년부터는 좋은 포도밭을 사들이며 최상위 생산자로 올라섰다. 오랜 기간 세대교체를 거치며 와인 품질 역시 기록이 있던 것이 2005년 뉴욕 금융가 컨소시엄이 인수하며 위상을 회복했다.

로버트 파커의 와인 애드보킷(Wine Advocate)에서 오랜 기간 수석 와인 평

론가로 활약했던 피에르도 이때 합류했다. 2ha에 불과했던 소유 포도밭은 25ha까지 늘어났다. 와인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포도밭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최고의 와인은 최고의 열매(포도)에서 나온다"며 "와인 양조 단계에서 철칙이라고 한다면 집착이라고 할 만큼 엄격하게 포도를 분류·선별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 부르고뉴의 발견담게 이 집은 기본급 와인을 먼저 만나봐야 한다. 프랑스어로 명성이란 의미인 '흐노메'로 이름붙인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이다.



(왼쪽부터)흐무와스네 부르고뉴 블랑 흐노메 2021, 흐무와스네 사브니 레 본 블랑 2020, 흐무와스네 부르고뉴 루주 흐노메 2022, 흐무와스네 페르낭 베르젤레스 프리미에 크루 앙 까하두 2019, 흐무와스네 지브리 상베르탱 2020.

흐무와스네 입장에서 기본급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가장 애를 먹이는 와인이기도 하다.

'흐무와스네 부르고뉴 블랑 흐노메 2021'는 호된 봄 서리로 힘든 해였지만 전형적인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의 우아함을 잘 살려냈다.

'흐무와스네 부르고뉴 루주 흐노메 2022'는 마시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레드 와인이다. 타닌은 존재감은 있지만 부드럽고, 신선한 과실은 절제됐다. 그는 "좋은 와인이란 튀지않고 여러 요소를 감싸안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평했다.

흐노메를 통해 부르고뉴로 입장했다

면 이제 한층 더 깊이 파내려갈 차례다. 영화같은 한 장면이 시작될테니 잘 따라오셔라.

누군가가 나에게 걸어들어와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여러 요소를 짚으며 말해주는 심장에 칼을 꽂아버린다. 그럼 무엇이 더 기억에 남겠는가. 나에게 대한 칭찬인가, 칼인가.

한창 와인 얘기를 하던 중에 이 무슨 섬뜩한 비유이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피에르는 "요즘은 아로마 판별에 치중하다 보니 질감과 여운을 놓치는 경향이 있지만 어떻게 끝나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며 "인위적인 양조 개입을 하지 않고 좋은 포도가 스스로 표현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흐무와스네 사브니 레 본 블랑 2020'은 그만큼 질감과 여운이 인상적인 와인이다. 높은 고도로 산도 좋은 구획과 점토질로 풍미가 있는 구획이 모여 복합미와 여운이 입 안을 가득 메운다.

'흐무와스네 페르낭 베르젤레스 프리미에 크루 앙 까하두 2019'는 포도밭의 석회질 토양과 경사진 지형이 그대로 반영됐다. 산도가 좋는데 알칼리는 과실도 어우러져 구운 삼겹살과 딱 어울릴 맛이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중앙그룹 콘텐츠 칸 진출... 글로벌 경쟁력 증명

영화 '호프', 드라마 '신의 구슬' 칸 영화제·칸 시리즈 동시 진출

중앙그룹이 세계 최고 권위의 칸 영화제와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칸 시리즈)에 영화와 드라마 작품을 동시에 진출시키며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룹 산하 영화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의 영화 '호프(HOPE)'(감독 나홍진)가 제79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SLL이 제작한 드라마 '신의 구슬'이 제9회 칸 시리즈 비

경쟁 부문 란데뷰(RENDEZ-VOUS) 섹션에 공식 초청됐다.

'호프'는 이번 칸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두고 경쟁하는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을 비롯해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테르, 테일러 러셀 등 글로벌 캐스팅으로 기획 단계부터 큰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압도적인 스케일과 독창적인 세계관, 거기에 '칸의 심미안'까지 충족시킨 만큼 공개 이후 세계시장에서 K-영화의 위상을 높일 강력한 화제작으로 주

목받고 있다.

SLL이 제작한 시리즈 '신의 구슬' 역시 제9회 칸 시리즈 비경쟁 부문 란데뷰(RENDEZ-VOUS) 섹션에 공식 초청되며 핑크카펫을 밟는다. '신의 구슬'은 '재벌집 막내아들'을 연출했던 정대운 감독과 '정도전' '녹두꽃'의 정현민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한국적 배경에 밀도 높은 서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동시 진출은 중앙그룹이 추진해 온 '멀티 스튜디오 시스템'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성공 방정식을 여실히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시네마 역대급 사운드관 베트남 상륙

광음시네마 첫 해외진출 발표

복합문화공간 컬처스퀘어(Culture Square)를 지향하는 롯데시네마가 사운드 특화관 광음시네마의 첫 해외 진출을 발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롯데시네마는 지난 6일 베트남 호찌민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고팜'에 사운드 특화관 광음시네마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해외 진출은 글로벌 전용 브랜드인 'BOOMAX'를 통해 이루어졌다. 'BOOMAX'는 심장을 울리는 초저음을 뜻하는 'BOOM'과 음압 증폭의 극대화를 의미하는 'MAX' 합성어로, 국내에서 입증된 광음시네마의 압도적인 사운드 정체성을 글로벌 관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브랜드했다.

광음시네마의 첫 해외 진출지로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는 역동적인 시장 성장세에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경험 소비와 프리미엄 관람 문화가 빠르게 확산 중이며 특히 청각적 몰입감이 중요한 호러,액션 장르의 선호도가 압도적이다. 롯데시네마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BOOMAX'를 순차 도입하여 베트남 내 프리미엄 상영관의 기준을 한 단계 더 높여겠다는 전략이다.

롯데시네마 고팜에 첫선을 보인 'SUPER PLEX WITH BOOMAX'는 롯데시네마의 대표 PLF 상영관인 슈퍼플렉스(SUPER PLEX)에 광음시네마를 접목한 특화관이다. 초대형 스크린이 주는 시각적 압도감에 온몸으로 느껴지는 강력한 저음역대의 광음 사운드를 더해 관객들에게 궁극의 몰입감을 제공한다.

실제 상영관을 찾은 현지 관객들은 "음향 100점. 음악 나올 때 좌석이 진동해 생동감이 엄청나다"며 "사운드가 생생하고 화면은 선명하며 공간까지 쾌적해 완벽한 몰입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새로운 사운드 경험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의 광음시네마 성과는 이미 독보적이다. 현재 전국 22개관을 운영 중이며 이달 말 롯데시네마 창원과 수원(아울렛)에 2개관을 추가 오픈해 국내에서만 총 24개의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특히 최근 SF 대작 '프로젝트 헤일메리', 공포 영화 '살목지' 등 사운드가 핵심인 영화들이 광음시네마와 시너지를 내며 일반관 대비 확연히 높은 좌석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성공이 해외 브랜드 'BOOMAX'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SOOP, 튀르키예 쿠파스 생중계... 오현규 출전

전 경기 중계... 해외축구 콘텐츠 확대

SOOP(숭)이 해외 축구 콘텐츠 확대에 나선다. 국가대표 공격수 오현규의 클럽 활약도 국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SOOP은 25·26 시즌 튀르키예 쿠파스 본선 전 경기를 국내 생중계한다고 16일 밝혔다. 튀르키예 쿠파스는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체, 베식타시 등 현지 명문

구단이 참가하는 컵 대회로, 유럽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주목받는 대회다. SOOP은 이번 중계를 통해 해외 스포츠 콘텐츠 라인업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베식타시에 소속된 오현규의 경기까지 중계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오현규는 팀 합류 이후 9경기 6골 2도움을 기록하며 빠르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팬



들도 그의 활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계에는 박찬우, 이완우 해설위원과 김태우, 홍석현, 윤요섭 캐스터가 참여한다. K리그를 비롯해 세리에A, UEFA 챔피언스리그 등 다양한 리그 중계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현장감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이란전으로 85조원 규모 에너지 인프라 피해 발생”
▲G7 재무장관, ‘중동 정세 조기 진정’에 공감... 공동성명은 보류 /사진 뉴시스

▲작년 日방일객 첫 4000만명 돌파...중국·중동 변수는 부담
▲“美 호르무즈 봉쇄 이후 16척만 통항...이란행은 옥수수 수송선 1척”

▲2차협상 앞美압박에 ‘레바논 1주 휴전’ 급부상... 네타야후 선택은
▲美, 日에 토마호크 납입 지연 가능성 통보...이란전 ‘불뚝’